

# 九拙庵 梁喜 研究

鄭 敬 薰 \*

## <目 次>

- |                     |             |
|---------------------|-------------|
| I. 序論               | IV. 詩文學의 面貌 |
| II. 自述과 人物評으로 본 爲人  | V. 結論       |
| III. 『龍城世稿』의 구성과 성격 |             |

## <국문 초록>

본고는 九拙庵 梁喜의 생애와 『龍城世稿』에 수록된 官僚詩에 대한 연구이다. 양희는 唐谷 鄭希輔의 高足으로 玉溪 盧禎, 靑蓮 李後白과 함께 지리산 함양지역의 ‘天嶺三傑’이라 칭송받았다. 그리고 德溪 吳健, 暘谷 蘇世讓 등과 함께 청렴한 관리로도 세상에 이름을 드러낸 인물이며 介庵 姜翼, 梅村 鄭復顯, 梅庵 曹湜, 桃灘 邊士貞 등의 名賢들과 당대를 풍미하였다. 양희는 正言과 持平을 시작으로 여러 내외직을 거쳐 1579년 掌隸院 判決事를 역임하였고 1580년 冬至使로 명나라에 使行하다가 北京 玉河館에서 순직할 때 까지 열정적인 관료의 삶을 지내온 인물이다.

그의 생애는 청백리였던 조부 逸老堂 梁灌의 영향을 받아 40여 년 관료 생활에 청렴한 관료 정신을 계승 받았다. 자신의 號인 九拙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품, 용모, 언어, 문장, 벼슬, 교유, 정치, 爲身, 자손들에 대한 계획 등 아홉 가지를 읊으며 스스로 權奸으로 어지러운 세상에 대응할 수 있는 덕목으로 여겼다. 그 결과로 양희는 66세의 노구로 명나라 사행 길에서 졸할 때까지 ‘肅將使命’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었다.

\* 충남대학교 한문학과 강사 / juilam@hanmail.net

그의 시가 당시에 여러 사람들에게 회자될 정도로 문학적 명성은 이미 세상에 떨칠 정도였고 다양한 詩體에서도 확인 할 수 있듯이 시에 대한 공력은 남달랐다. 그러나 그의 문집은 산실되어 전해지지 않고 다만 『龍城世稿』에 잔존하는 그의 시세계는 淸貧한 삶과 苦難한 官僚 생활을 드러내고 있으며 백성들의 삶과 世態에 대한 感慨를 거침없이 표현하고 있었다. 특히 「九拙庵十詠」은 그의 삶과 문학의 근본 사상을 이루는 작품으로 평가 받을 수 있다. 그의 시에는 백성들의 삶이 왜곡 없이 진솔하게 표현되어 있었고 지방관의 올바른 도리와 관리의 본분을 실현하기를 갈망하였다. 그리고 수령의 본분을 權力의 기반으로 삼지 않았고 백성들의 어려운 현실을 이해하고 보호하며 진정한 牧民관의 자세를 강렬히 드러내고 있다.

【주제어】 九拙庵, 梁喜, 龍城世稿, 淸貧, 苦難, 牧民官

## I. 序論

九拙庵 梁喜(1515(중종10)~1580(선조13))는 지리산 함양 지역에서 출생한 鴻儒로 명조와 선조시기 청빈한 관료로 활약했다. 그리고 唐谷 鄭希輔(1488~1547)의 高足으로 佔畢齋 金宗直(1431~1492)이 함양군수로 오면서 많은 인재를 육성하여 濡溪 兪好仁(1445~1494)·藍溪 表沿沫(1449~1498)·一蠹 鄭汝昌(1450~1504) 등의 영남 사림을 계승한 인물이다.<sup>1)</sup>

1) 李德懋, 『靑莊館全書』(『韓國文集叢刊』 259) 卷68, 「寒竹堂涉筆(上)」, 「咸陽名賢」, p.243, “咸陽名賢, 蔚然一代, 今則遺風泯焉. 有書院五所, 濫溪澹洲二書院, 卽賜額也. 濫溪書院, 文獻公鄭一蠹鄭桐溪蘊姜介菴翼亨焉. 兪潘溪好仁, 院中作別祠而享焉. 澹洲書院, 盧玉溪禎獨享. 栢洲書院, 崔孤雲致遠金佔畢宗直, 以名宦享焉. 道谷書院, 趙德谷孝全鄭竹堂六乙盧松齋叔全享焉. 竹堂, 一蠹之父也. 松齋, 玉溪之曾祖也. 龜川書院, 表濫溪沿沫朴春塘孟智梁九拙喜梁逸老灌河愚溪孟寶姜琴齋漢亨焉. 桐溪生於安陰, 而以隣近享焉. 李青蓮後白, 亦生於咸陽, 而獨無享焉, 人皆恨之.”

양희는 玉溪 盧禎(1501~1572), 靑蓮 李後白(1520~1578)과 함께 天嶺(함양의 옛 명칭) 三傑이라 일컬어졌으며<sup>2)</sup> 당국의 문하였던 德溪 吳健(1521~1574), 暘谷 蘇世讓(1486~1562) 등과 함께 청렴한 관리로도 세상에 이름을 드러낸 인물이다. 뿐만 아니라 介庵 姜翼(1523~1567), 梅村 鄭復顯(1521~1591), 梅庵 曹湜(1526~1572), 桃灘 邊士貞(1529~1596) 등의 名賢들과 당대를 풍미하기도 하였다.

양희는 1540년(중종 35) 思庵 朴淳(1523~1589)과 함께 司馬試에 합격하였고 1546년(명종 1) 聽天堂 沈守慶(1515~1599), 草堂 許曠(1517~1580)과 함께 문과에 급제하면서 관료 생활을 시작하였다. 양희는 正言과 持平을 시작으로 여러 내외직을 거쳐 1579년 掌隸院 判決事를 역임하였고 1580년 冬至使로 명나라에 使行하다가 北京 玉河館에서 순직할 때까지 열정적인 관료의 삶을 지내온 인물이지만 그의 생애 전모를 밝혀 주는 자료나 문집은 아직 발견되지 못하여 연구가 미미한 형편이다.<sup>3)</sup> 양희에 대한 본격적 연구와 그의 전모를 아직까지 살피지 못한 이유는 문집 자료의 산실과 동시대에 교류했던 인물들과의 관련성 속에서 추가 자료의 발굴이 절실하지만 아직 성과가 뚜렷하지 못했기 때문이다.<sup>4)</sup>

2) 李德壽, 『西堂私載』(『韓國文集叢刊』 186) 卷8, 「吏曹參判贈吏曹判書梁公墓碣銘」, p.402, “及長, 與盧玉溪禎, 李靑蓮後白, 相切磋爲學, 時稱天嶺三傑”

3) 『함양역사인물록1』(함양문화원, 함양문화연구소, 2004, pp.617-619); 『歷代咸陽人物論文集 I』, (함양문화원, 대보사, 2009.); 『경남의 서원』(구산우의 3인, 창원대학교 경남학연구센터, 2008, pp.522-523.); 노재현·이정환의 논문(「시문과 바위글씨로 본 함양 大孤臺의 경관 향유자와 場所霸權」(『한국전통조경학회지』 32권, 한국전통조경학회, 2014, pp.10-21.) 등이 있지만 간략한 인물소개만이 있을 뿐이다.

양희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우용순의 논문(「九拙庵 梁喜의 士林意識과 詩世界」, 『慶南文化研究』 30집,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소, 2009, pp.239-263.) 이외에는 전무하다. 우용순은 양희의 사림기저를 天理의 闡明과 儒家的 합리주의, 현실정치에 대한 대응으로 제시한 拙境의 세계관을 제시했다. 그리고 그의 시세계를 守職意識과 行路難으로 설명하였다. 본고는 선행연구를 도움을 받아 언급되지 않은 작품을 중심으로 그의 시세계를 살펴보았다.

4) 2014년 8월 9일 함양 지리산문학관에서 본고의 발표가 있을 때, 양희의 후

이에 본고에서는 현존하는 그의 작품 가운데 『龍城世稿』에 수록된 자료와 여타 詩話集 등에 발견되는 작품을 바탕으로 그의 爲人을 간접적으로 재구성해 보고자 한다. 나아가 아직 그의 생애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없는바, 『朝鮮王朝實錄』과 교유 문인들의 문집이나 기록물에서 散見되는 양희에 대한 인물평을 중심으로 그의 생애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양희의 작품이 가장 많이 전해지는 『용성세고』를 개관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그의 시문학 속에서 40년 동안 관료 생활을 통해 얻어진 淸貧의 삶과 이에 동반되는 貧寒의 삶의 모습, 지방목민관의 자세 등을 고구해 보고 이를 통해 16세기 영남 사림으로, 관료로, 문인으로 한 획을 성취한 구출함의 정체성을 밝히고 앞으로 양희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의 기초로 삼고자 한다.

## II. 自述과 人物評으로 본 爲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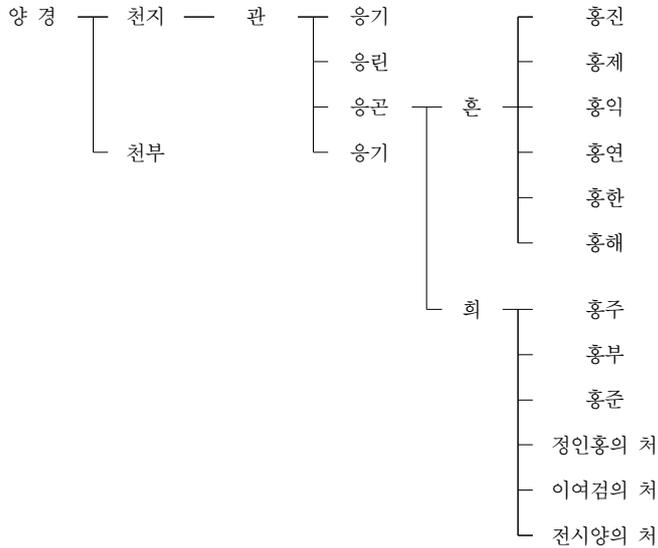
양희의 본관은 南原으로 자는 懼而이며 1515년(중종 10) 함양군 수동면 효우리에서 출생하였다. 아버지는 應昆(1475~1524; 字 太沖, 號 三斯堂)이며 어머니는 姜文會(1433~1499; 字 友仁, 號 逍遙堂)의 딸이다.<sup>5)</sup> 남원 양씨가 함양에서 세거하기 시작한 것은 이미 양희의 증조부인 梁川

손들에 의해 『龍灣奔問錄』을 접할 수 있었다. 『龍灣奔問錄』은 양희의 아들인 西溪 梁弘澍와 그의 아들인 眞愚齋 梁楬이 임진왜란 당시 의병활동을 기록한 책이다. 이 책은 병자호란에 호서로 피란할 때 땅에 묻어 화를 피했고 이후 서계의 증손인 蓬隱 梁錫九가 1663년 수습한 것이다. 서문은 없고 마지막 부분에 崔錫鼎의 「題龍灣奔問錄」이 있어 임진왜란 당시의 의병활동의 실체와 상황을 알 수 있다.

5) 양희의 생애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조하였다.

①『明宗實錄』, ②『宣祖實錄』, ③『龍城世稿』 乾·坤, 「省谷」; 「逸老堂」; 「九拙庵」; 「西溪」條, ④宋時烈, 『宋子大全』 卷206, 「靑蓮李公行狀」, ⑤李德壽, 『西堂私載』 卷8, 「吏曹參判贈吏曹判書梁公墓碣銘」, ⑥尹光紹, 『素谷先生遺稿』 卷3, 「龍城世稿序」, ⑦李德懋, 『靑莊館全書』 卷68, 「寒竹堂涉筆(上)」, 「咸陽名賢」, ⑧『南原梁氏大同譜』 1~4, 1998, ⑨『南原梁氏家乘譜』, 1985.

至(1396~1447; 字 長源, 號 省谷) 때 이전부터이다. 양지천이 梁灌 (1437~1507; 字 沃之, 號 逸老堂)을 함양의 毛看<sup>6)</sup>에서 낳으면서부터 이 곳은 남원양씨의 세거지가 되었다.



양희의 先系를 살펴보면, 큰 관직을 영위하지 않았지만 지역 사람의 역할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을 정도의 관직은 이어왔다. 4대조인 梁經이 珍山郡守를 역임하였고 증조부인 양천지는 生員試에는 합격했지만 학문에 오로지 전념하여 출사하지 않았다. 양희의 조부인 양관은 학문에 뜻을 두어 經書와 史書를 널리 통달했지만 과거에 세 번 실패하자 문과 응시를 단념하고 무과에 응시하여 1460년(세조 6)에 합격해 여러 지방 벼슬을 거쳤다. 그가 장흥부사를 사임하고 돌아올 때 소지품이 『小學』과 李白·杜甫의 시집과 거문고와 피리 밖에 없을 정도로 청렴하여 마침 여사가 동행하여 이 사실을 성종에게 알리자 가상히 여겨 청백리로

6) 현재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우명리 효리를 말한다.

기록하였다.<sup>7)</sup> 성종은 그의 관직을 사임하고 돌아올 때의 행색을 그림으로 그려 벽에 붙이고 수령에게 보이게 할 정도였다. 이후 벼슬은 知敦寧府事に 이르렀지만 여러 차례 국왕의 부름에도 나이를 핑계로 나가지 않았고 말년에 ‘逸老堂’이라는 精舍를 짓고 꽃과 대나무를 벗 삼아 보냈다.

양관의 청렴한 관직 생활은 양희에게도 충분히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양관은 지방 목민관으로 여러 지역을 전전했지만 백성들에게 과도한 부역과 수탈을 일삼던 지방 방백들을 거부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며 청렴한 관료 정신을 견지하면서 治民에 더욱 매진했던 것이다. 이러한 면모는 양희의 관료 행적에서도 확인된다.

양희는 양응곤의 셋째로 태어났지만 10세(1524)의 나이에 부친이 작고하면서 어머니의 엄격한 가르침으로 유년기를 보냈다.<sup>8)</sup> 장성하여 당국의 문하에 취학하여 옥계, 청련과 함께 영남삼걸로 칭송되었을 정도로 정희보의 고족에 이르게 되었다.

양희는 26세(1540) 사마시에서 1등으로 합격을 했는데, 이때 같이 합격한 사람으로는 이후 영의정을 역임한 思庵 朴淳이 있다. 이후 명종 즉위년에 乙巳土禍(1545)가 발발하고 1년 뒤 양희는 32세에 식년문과에 올라 급제하면서 본격적인 관료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다. 이때 司諫院 正言을 거쳐 司憲府持平이 되었지만 당시 정권을 잡은 大尹인 尹任 일파의 탄압으로 여러 번 외직으로 전전하였다.<sup>9)</sup> 그러나 양희는 충청·경상도사, 부안·익산·김해·양주·의주·안동·파주 등의 목민관으로 善政을 펼치면서 조부 양관의 청백리의 계보를 이었다.

7) 『成宗實錄』, 「성종24년 11월 18일」, “平安道觀察使李則馳啓, 今降教書 守令有廉靜勤謹奉公憂民者, 誣上行私關官病民者, 勿拘殿最以聞. 臣觀, 德川郡守梁灌, 廉靜謹直, 盡情奉公.”

8) 李德壽, 『西堂私載』 卷8, 「吏曹參判贈吏曹判書梁公墓碣銘」, p.402, “公少孤, 能自力爲學, 大夫人性嚴, 其教公, 不以愛而弛, 公克承克循, 不敢或違.”

9) 李德壽, 『西堂私載』 卷8, 「吏曹參判贈吏曹判書梁公墓碣銘」, p.402, “庚子, 中司馬一等, 丙午, 又擢文科. 時權奸當國, 清流不能見容, 公亦斂避名塗, 屢求外出, 歷典三邑.”

양희의 관료로서 청빈한 삶은 자신의 號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신의 모든 면모가 졸렬함을 면치 못함을 자술한 시에서도 잘 나타난다. 일찍이 자신의 호 九拙에 대해 성품, 용모, 언어, 문장, 벼슬, 교유, 정치, 爲身, 자손들에 대한 계책 등 아홉 가지를 읊은 바 있다.

世人非我棄	세상 사람들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吏府用賢臣	이조에서 훌륭한 신하 등용한 것이네
雅望皆前列	명망 높은 사람은 모두 앞으로 나갔고
疎慵獨後塵	성글고 게으른 나만 홀로 뒤에 남았지
朝廷常屏跡	조정에서는 항상 자취를 감추고
州縣或藏身	고을에서는 간혹 몸을 숨겼지
子識休官好	관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좋지만
浮沈只爲貧	이리저리 휩쓸리는 것은 가난 때문이네 <sup>10)</sup>

양희가 관료 생활을 시작했을 무렵은 이미 을사사화로 사람들이 혹독한 시련을 겪었으며 훈구세력들과 권력 재분배와 사림 세력의 도학정치를 실현하려는 열망이 위기에 처했던 시기였다. 그러므로 양희의 宦路는 매우 조심스러워 조정에서는 항상 자취를 감추거나 조심하였고 지방 고을에서도 被禍를 걱정하며 몸을 숨기기도 하였던 것이다. 비록 같이 급제한 박순과 같은 동료들의 宦路가 순탄함에 비해 양희는 지방으로 전전하는 등 변변치 못한 宦路였지만 권력에 야합하며 자신의 부귀영달은 거부했던 것이다. 그는 비록 청빈한 관료 생활로 40여 년을 관직에 머물렀지만 스스로 아홉 가지 졸렬함으로 자신을 경계하며 조부의 청백리 계보를 계승하여 承訓家庭의 전통을 계승하였던 것이다. 양희의 아홉 가지 졸렬함은 오히려 어지러운 세상에 자신이 대응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인식하고 졸렬의 현명함을 파악했던 것이다.

양희는 54세(1568)였던 선조 원년에 禮賓寺正 知製教로 春秋館 編修官을 겸직하여 習齋 權擘(1520~1593), 芝川 黃廷彧(1532~1607), 眉巖 柳希

10) 『龍城世稿』(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乾, 「九拙庵十詠」中 「官拙」.

春(1513~1577) 등과 함께 『明宗實錄』의 편찬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66세(1580)였던 선조 13년, 吏曹參判에 拜受되고 같은 해 冬至 進賀使로 명나라로 조회에 참례하여 응대하고 귀국하는 도중 11월 23일 옥하관에서 66세의 일기로 졸하였다.<sup>11)</sup> 그가 작고하자 명나라 황제가 슬퍼하며 賻物을 후하게 내리고 禮部侍郎 河洛을 보내 賜祭하며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문장과 절의는 동방에서 뛰어났다. 공경히 사명을 띠고 궐정에 내근하였도다. 季子가 주나라를 보니 덕과 예의 닦고 살폈도다. 수고로움을 다하여 명을 목숨을 마쳤으니 양심에 느껴 슬프도다.<sup>12)</sup>

명나라 황제 神宗은 양희의 문장과 절의를 높이 평가하였다. 특히 양희가 66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고난한 使行을 왔다는 사실에 ‘肅將使命’이라 칭송한 것도 그의 투철한 관료의식을 칭송한 것이다. 그러므로 신종은 양희의 사망 소식을 접하고 매우 슬퍼하며 조선의 사신인 양희에게 ‘贈光祿大夫 禮部尙書’를 내리기도 하였다.

조선에서 명나라로 보내는 정기 사행은 正朝使·聖節使·進賀使 등을 三節使라 하며 정례 사신을 파견하였다. 양희가 명나라에 간 사행은 동지 절기 전후에 파견하는 정기 사행으로 당시 명나라 황실에 경사를 축하하기 위한 축하사절단이었다. 이 정례 사행은 원래 별도로 엄격히 관원을 선발하여 파견하였고 명나라 황제를 직접 대면하기 때문에 문장력을 겸비한 사신을 보냈다.<sup>13)</sup> 양희는 66세의 병든 노구를 이끌고 선조

11) 『宣祖實錄』. 선조14년 1월5일 보고에 양희가 북경 옥하관에서 사망했다는 보고가 도착했다는 기록(“庚午, 冬至使先來, 入京使梁喜, 在玉河館身死事, 入啓.”)으로 보아 양희는 이 전해인 1580년 작고한 것이 옳바르다.

12) 李德壽, 『西堂私載』 卷8, 「吏曹參判贈吏曹判書梁公墓碣銘」, p.402, “文章節義 東表之英. 肅將使命, 來覲闕庭. 季子觀周, 德禮修考. 盡瘁長終, 良深感悼.”

13) 선조시기 명나라로 빈번하게 파견한 朝天使로 문명을 떨친 月沙 李廷龜, 簡易 崔笠, 五峯 李好閔 등이 좋은 예이다.

의 명을 받들어 떠나 먼 명나라 사행길을 왕래하였다. 양희의 사망 소식이 이듬해 1월에 선조에게 보고되자 선조는 그의 致祭文에서 “병이 들어도 임금을 잊지 않았고 사사로운 일은 말하지 않았다”<sup>14)</sup>라 언급하며 양희의 先公後私의 투철한 관료의식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栗谷 李珣(1536~1584)는 「題九拙庵」에서 성품의 졸렬함, 용모의 졸렬함, 언어의 졸렬함, 문장의 졸렬함, 활쏘기의 졸렬함, 벼슬의 졸렬함, 교유의 졸렬함, 생활계획의 졸렬함, 자손에 대한 졸렬함을 언급하며 양희의 졸렬함은 모든 사물의 시초라고 지적하였다.

大朴散生巧	거대한 질박함이 흩어져 공교로움을 낳으니
拙乃物之初	졸박함이 바로 사물의 시초라네
使君已聞道	사군께서는 이미 도를 깨닫아
自修恒有餘	스스로 항상 여유롭다네
直性乘眞率	곧은 성품에 진실함이 더해졌고
古貌又清疏	예스런 풍모는 더욱 맑고 소탈하네
有言實不華	말은 진실되고 화려하지 않고
有文鬱而舒	문장은 너럭하며 활달하였네
觀德不主皮	덕을 살피고 힘을 숭상하지 않았고
宦遊任乘除	벼슬길은 천명에 맡길 뿐이네
貧交淡若水	청빈한 사귀는 물과 같이 담박하고
屢空常晏如	쌀독은 자주 비었어도 항상 평온하네
子孫遺以安	자손들에게 평안할 방법 남겨주니
負郭無菑畬	곤궁하게 살면서 밭조차 없었다네 <sup>15)</sup>

(下略)

이이는 양희의 爲人에 대해 大朴, 眞率, 清疎, 不華로 설명하며 아홉 가지가 졸렬하다고 자술한 이면에서 그의 본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14) 李德壽, 『西堂私載』 卷8, 「吏曹參判贈吏曹判書梁公墓碣銘」, p.402, “臨絕之語, 唯以未報國恩爲恨, 不及其私.”

15) 李珣, 『栗谷全書』(『韓國文集叢刊』 44) 卷1, 「題九拙庵」, p.25.

또 양희의 일생에 대해서도 문학의 성취와 宦路의 어려움, 청빈의 삶과 곤궁한 생활에서 진면목을 찾고 있다. 율곡은 아홉 가지 즐림함이 오히려 그의 고매한 성품을 강렬하게 드러내는 것이라 여겼다. 나아가 양희는 ‘구졸’을 자신의 거처에 편액으로 만들어 걸고 구졸의 정신을 항상 추구하였다.<sup>16)</sup>

양희는 비록 평생을 寒士의 가난한 선비와 같이 淸貧한 삶을 유지했지만 40여년을 宦路에 머물면서 빈발하는 政變과 淸流가 용납되지 않는 시대에도 자신의 직분을 지켰으며 이로 인해 여러 번 외직을 전전하였지만 조부인 양관같이 청백리의 자세를 충실히 이행하였다. 비록 양희는 자신의 언변에 대해 즐림하다 여기며 “사람들 모두 구변이 넉넉하지만, 나만 입술을 풀로 붙인 듯하네. 치욕을 당해도 억울하다 하지 않고 누명을 입어도 변호하지 않았네.[人皆口舌饒, 我獨政如膠, 見屈猶無訟, 當誣未解嘲]”라고 自述하였지만 權奸이 득세하는 당시에 자신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하였다. 나아가 세속의 교언영색을 일삼는 權奸의 무리들과 어울리지 않겠다는 견고한 거부 의지가 있는 것이다.<sup>17)</sup>

### Ⅲ. 『龍城世稿』의 구성과 성격

양희의 생애뿐만 아니라 작품들은 이미 산실되어 현재 남아 있는 그와 관련된 작품은 매우 제한적이다. 양희가 비록 66세의 고령의 나이에 작고했지만 계속된 관료 생활과 북경 옥하관에서의 갑작스런 죽음, 사후 임진왜란 등의 전란 발발과 궁핍한 삶으로 문집을 수습할 기회가 없

16) 李德壽, 『西堂私載』 卷8, 「吏曹參判贈吏曹判書梁公墓碣銘」, p.402, “嘗構少齋, 扁以九拙, 畵書松竹, 列置內外, 題詩以詠, 九拙之意, 謂性拙貌拙言拙文拙官拙政拙與朋友交拙爲身謀拙爲子孫計拙也. 栗谷李先生, 亦有詩贊其高.”

17) 우응순, 「九拙庵 梁喜의 士林意識과 詩世界」, 『慶南文化研究』 30집,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소, 2009, p.248.

었을 것이다. 다음 진술은 그의 문집 소재를 밝힐 수 있는 편린이다.

문사는 풍부하고 화려했으며 시는 더욱 청신하였다. 일찍이 매화를 읊은 시가 있었는데, 그 시의 한 연구에 ‘눈이 시 읊조리는 입술을 때리니 시도 열려고 하는데, 노래 부채엔 매화꽃 휘날려 곡조에 향기 풍기네’라는 구절은 모든 사람들이 월 정도였다. 저술한 것은 모두 병란에 산실되었고 약간 편만 집안에 소장되어 있다.<sup>18)</sup>

인용문은 西堂 李德壽(1673~1744)가 찬한 양희의 묘갈문이다. 이덕수는 양희에 대해 文詞가 富華하였고 詩는 더욱 清新하다고 높이 평가하였지만 그의 문집은 전란으로 산실되었고 몇몇 작품만이 家藏으로 전해지는 안타까운 상황을 말하고 있다. 그의 시가 세간에 월 정도로 시작에 뛰어난 성과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미 이덕수가 생존했던 17~18세기에 양희의 문집은 존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양희가 역임한 관직조차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양희에 관련된 기록은 당시에도 전해지지 않았지만 양희의 遺稿를 보았다는 기록[文籍散亡, 至於官職所歷, 亦無所考. 惟就見於遺稿者, 畧記其一二焉]으로 보아 사후에 한차례 이상 문집이 수습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안타깝게 양희의 문집이 전란으로 산실되었지만 家藏으로 전해지는 작품은 이후에 수습이 되는데 바로 『龍城世稿』이다. 『용성세고』는 남원 양씨 용성군과 인물의 작품을 모은 책이다. 9代 省谷 川至, 10代 청백리 逸老堂 灌, 11代 三斯堂 應鯤, 12代 九拙菴 喜, 13代 西溪 弘澍, 13代 將仕郎 弘溥, 14代 眞愚齋 槐 등 6代 7名의 詩文, 遺事, 行狀, 墓碑, 遺稿 등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 편찬한 책이다. 『용성세고』는 梁錫九에 의해 초고가 만들어 지고 1786년(정조 10) 梁德貞이 목판으로 제작, 반포하여 양희 사후 200년 뒤에 완성되었다.

18) 李德壽, 『西堂私載』 卷8, 「吏曹參判贈史曹判書梁公墓碣銘」, p.402, “文詞富麗, 詩尤清新, 嘗有詠梅詩, 其一聯云雪打吟唇詩欲凍, 花飄歌扇曲生香, 人皆傳誦. 所著述盡逸於兵燹, 只若干篇, 藏于家.”

『용성세고』의 서문은 素谷 尹光紹(1708~1786)가 1785년 八分體로 찬했다.<sup>19)</sup> 이 글을 살펴보면 『용성세고』의 편찬과정을 대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내가 일찍이 목옹의 문하에서 학문을 배우고 서계 양선생 부자의 유사를 얻어 본적이 있었는데 의리에 돈독하고 학문에 독실한 공역을 깊이 추앙하였고 이후에 『용성세고』의 책자를 보고 더욱 뿌리가 깊고 훌륭한 집안임을 더욱 탄식하게 되었다. 대개 양씨는 멀리 대대로 유서가 깊은데, 우리 조정에 와서는 성곡공이 처음으로 유학으로 집안을 세웠고 이어 일노당께서 기초를 닦았으며 삼사당이 그 일을 이었고 양희 때에 크게 번창하여 서계 부자 때에 선정의 유훈을 계승하여 더욱 유업을 떨쳤다. 여러 대 동안 좋은 평판을 이어 첩첩히 끊이지 않을 정도였으나 아, 성대하구나! 우리 조정을 살펴보면, 강씨에게는 세고가 있고 이씨에게는 연주가 있어 매우 아름답지만 이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심에 조금도 유익하지 않고 실속이 없고 겉만 화려한 시문에 불과할 뿐이다. 어찌 양씨의 6대 유학의 한 맥이 이보다 뒤쳐질 수 있겠는가?<sup>20)</sup>

윤광소는 默翁 宋堯佐(1678~1723)에서 수학하면서 양희의 장자인 西溪 梁弘澍(1550~1610)가 장자인 眞愚齋 梁槐와 함께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일으켜 鶴峯 金誠一(1538~1593)의 휘하에서 왜군과 싸운 遺事を 듣고 매우 감복하였고 이후에 『용성세고』의 책자를 보게 되었다. 『용성세고』가 양희를 포함하여 증조부인 성곡 양천지와 조부인 일노당 양관, 부친인 삼사당 양응곤, 그리고 양희의 두 아들인 양홍주와 양부, 손

19) 『素谷遺稿』의 「龍城世稿序」에 “乙巳”의 기록으로 보아 1725년(18세)과 1785년(78세)에 해당되지만, 『용성세고』에 “知敦寧府事”라는 기록으로 보아 1785년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20) 尹光紹, 『素谷先生遺稿』(『韓國文集叢刊』 223) 卷3, 「龍城世稿序」, p.97, “不佞嘗緒輯默翁門下文字, 得見西溪梁公父子遺事, 深仰其惇義篤學之功, 後又見龍城世稿冊子, 益歎靈芝醴泉自有根源也. 蓋梁氏遠有代序, 我朝有省谷公, 始以儒學立家, 繼而逸老礪其操, 三斯述其事, 九拙昌以大之, 而西溪父子, 又承訓先正, 益闡儒業, 奕世令聞, 壘壘不已, 吁盛矣哉. 余見國朝, 姜氏有世稿, 李氏有聯珠, 固美矣. 是不過風雲月露之響而已, 豈如梁氏之六世儒學一脈不墜者比哉.”

자인 양황의 저술을 모아두었지만 시문에 그치지 않고 6대 7명의 儒學에 관련된 작품을 종합했음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세조와 성종 대에 활약한 仁齋 姜希顔(1417~1464)과 私淑齋 姜希孟(1424~1483)의 진주강씨의 작품을 모은 『晉陽世稿』나 月沙 李廷龜, 靜觀齋 李端相(1628~1669) 등 연안이씨의 시문집을 모은 『聯珠集』과 우열을 비교하며 『용성세고』의 시문 뿐만 아니라 유학과 관련된 광범위한 수록범위를 부각시키고 있다. 곧 『용성세고』가 앞서 만들어진 『진양세고』나 『연주집』처럼 집안 名賢들의 작품을 모아 편찬한 것을 모범 삼았지만 문학작품에 한정하지 않고 儒業과 관련된 글들을 함께 수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존하는 『용성세고』를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sup>21)</sup>

책	권	인물	문체	작품수	비고
1책	1권	尹光紹	序	1篇	
		梁川至(省谷)	五言絶句	2題2首	
			七言絶句	3題4首	
			七言律詩	2題2首	
			雜著	1篇	
		梁灌(逸老堂)	七言絶句	3題3首	
			七言律詩	1題1首	
		梁應鯤(三斯堂)	七言絶句	6題7首	
			七言律詩	2題2首	
			七言古詩	3題3首	
		梁喜(九拙庵)	五言絶句	17題22首	六言絶句 1首 포함
			七言絶句	22題36首	
			五言律詩	17題31首	
			七言律詩	14題15首	
			五言排律	2題2首	
			五言古詩	23題41首	
詞	1題3首				
祭文	6首				
碣銘	1首				

21) 양희의 작품 개관은 우응순의 선행 연구를 참고하였다.

책	권	인 물	문 체	작품수	비 고
1책	1권	梁喜(九拙庵)	行狀	2篇	
			賦	1首	
2책	2권	梁弘澍(西溪)	表	1篇	
			七言絶句	1題1首	
			五言律詩	1題1首	
			七言律詩	3題10首	
			五言排律	1題1首	
			歌詞	1題2首	
			七言古詩	2題2首	
			書	1篇	別紙 포함
		梁弘溍(將仕郎)	七言律詩	1題2首	
			五言絶句	2題2首	
		梁槐(眞愚齋)	七言絶句	2題2首	
			五言律詩	7題11首	
			七言律詩	11題15首	
			賦	1首	
			銘	1首	
書	1篇				

『용성세고』는 2책 2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1책에는 양천지, 양관, 양응곤, 양희 등 4명의 詩文이 수록되어 있다. 양천지의 작품은 시 8수와 잡저 1편이고 양관은 시 4수, 양응곤의 경우 시 12수 등 소략하게 수록되어 있다. 반면 양희의 경우는 시 147수, 詞 3수, 賦 1수, 祭文 6수, 碣銘 1수이고 행장 2편, 表 1편으로 운문 가운데 시가 압도적으로 많지만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다.

2책에서 양홍주의 경우 15수의 시와 歌詞 2수, 書 1편, 疏 2편이고, 양홍주의 동생인 양홍부의 경우 2수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양황의 경우 32수의 시와 賦 1수, 銘 1수, 書 1편이 수록되어 있다. 2책의 경우 임진왜란과 관련한 글들이 유난히 많은데 양홍주와 그의 아들 양황이 임진왜란 때에 의병을 일으킨 인물이기 때문이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용성세고』 1책은 양희의 작품을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2책은 양홍주와 양황의 작품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안

타감게도 양희의 문집이 전란으로 상당히 산실되었지만 『용성세고』에 현존하는 작품으로 보아 당시 양희의 문집 초고본의 분량과 수준을 대략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 IV. 詩文學의 面貌

##### 1. 淸貧한 삶과 苦難한 官僚 생활

앞서 살펴보았듯이, 양희는 시로 一家를 이루었으며 文詞가 富華하며 시는 더욱 淸新하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였다. 양희는 어려서부터 노진, 이후백, 강익과 함께 聯句를 회작할 정도로<sup>22)</sup> 詩作에 많은 관심과 공력을 쏟았다.

양희에게 다음과 같은 일화가 전해지고 있다. 양희는 「눈 내린 밤 매화를 찾아[雪夜尋梅]라는 제목으로 시를 쓰다가 “옴은 입술 눈 내려 시도 열려 하는데[雪墮吟唇詩欲凍]”라는 구절을 얻고는 오랫동안 댓구를 완성하지 못하다가 결국 잊고 말았다. 10년 후 꿈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 “선생은 왜 ‘시도 열려 하는데’의 짝을 짓지 않는가요?”라고 묻고는 ‘노란 부채에 매화꽃 휘날려 곡조에 향기 풍기네[梅飄歌扇曲生香]’라 나직이 읊어주자 양희가 놀라 깨어서 마침내 장편 율시를 완성하였다고 한다.<sup>23)</sup> 당시에 이 구절이 회자될 정도로 양희의 명성은 이미 세상에 떨

22) 盧禎, 『玉溪集』(『韓國文集叢刊』續37) 卷4, 「戲飲聯句」, p.382, “晉代疏狂畢吏部(九拙). 風流千載屬吾儕(青蓮). 瓮間盜飲無人縛(介庵). 大醉還山月欲低(玉溪).”

23) 『大東奇聞』 卷1, 「中宗條」, “梁喜十年後, 續對詩欲凍. 梁喜南原人, 文科. 工於詩, 雪夜尋梅, 吟得雪墮吟唇詩欲凍, 久未能對, 遂忘不記. 十餘年後, 夢有人, 來問曰, 子何不續詩欲凍之句耶. 仍微吟梅飄歌扇曲生香, 覺而異之, 遂成長律.” 각주18)에서 인용한 西堂 李德壽의 「吏曹參判贈吏曹判書梁公墓碣銘」에서는 “雪打吟唇詩欲凍”이라 인용되고 있는데 『大東奇聞』의 “雪墮吟唇詩欲凍”과 ‘打’와 ‘墮’가 서로 혼동되어 수록되어 있다. 두 곳 모두 전해지는 말을 바탕으로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정확한 글자인지 확인하기 어렵지만

칠 정도였고 다양한 詩體에서도 확인 할 수 있듯이 시에 대한 공력은 남달랐다고 할 수 있다.

양희가 살았던 16세기는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사림이라는 이념집단으로서의 사회 세력이 대두하게 된 것이다. 이들은 훈구파와 중앙 정치세력 간 충돌의 여파와 왕실의 외척들의 갈등으로 여러 번 화를 입어 양희와 같이 영남의 지방 사림들의 세력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서 양희는 더욱 관료의 자세를 가다듬지 않을 수 없었다.

有耳貴乎聽	귀는 잘 가려듣는 것이 중요하니
吉凶當審從	길흉을 살펴 따라야 하네
今者蕩於聞	오늘날 들리는 대로 멋대로 들으니
不如化爲聾	귀머거리 되는 것만 못하네
有目貴乎明	눈은 밝게 보는 것이 중요하니
善惡當審行	선악을 가려 실천해야 하네
今者眩於色	오늘날은 걸모습에만 현혹하니
不如化爲盲	장님 되는 것만 못하네
雖然行四體	비록 사지가 멀쩡하더라도
耳目那可廢	눈과 귀를 어찌 없앨 수 있겠는가
然則當奈何	그러면 어찌해야 하나
慎勿循非禮	삼가 예가 아닌 일을 하지 말라 <sup>24)</sup>

양희는 급변하는 정치상황에서 자신의 직분을 지키기는 고단한 현실은 관료로서 높은 책임감과 흔들리지 않는 마음자세가 필요했던 것이다. 귀로 잘 가려듣고 눈으로 선악을 총명하게 관찰해야만 혼란한 중앙 정치 현실에서 자신의 護身이 가능했던 것이다. 눈과 귀로 보고 듣는 것은 반드시 禮를 기저로 삼아야 하는, 조선조 儒者들의 정통적 관료의식을 확고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자의 四勿이 禮를 바탕으로 형성되었듯이<sup>25)</sup> 양희

전체적인 내용에는 차이가 없어 각각 수록된 글자 그대로 인용한다.

24) 『龍城世稿』 乾, 「寓感」 三首 中 第一首.

도 견고한 유가적 사유를 통해 청빈한 관료 자세를 유지할 수 있었다.

양희의 시는 관료 생활에서 산출된 작품들, 외직으로의 이임과 동료 관료들과의 교류, 외국 사신들과의 酬酢詩 등에서 시적 특징이 발견된다. 특히 그가 40여 년 동안의 관료 생활에서 얻은 시들은 혼탁한 세상에 합류하지 않고 외로운 清流의 삶을 묵묵히 지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位下人誰記	지위 낮으니 어느 누가 기억하겠나
名微不與言	이름 미천하니 함께 말하는 이 없네
詩成還自和	시가 완성되면 다시 혼자 화답하고
酒熟獨開樽	술이 익어 가면 홀로 술동이 여네
寂寞憑松竹	외롭고 쓸쓸하게 송죽에 기대고
清貧友子孫	청빈을 자손처럼 벗으로 여기네
浮沈六十年	세파에 시달린 지 육십 년
朝暮掩衡門	조석으로 형문을 닫아두네 <sup>26)</sup>

60년 세파에 청빈한 관료 생활이란 참으로 고난한 길이며 확고한 의식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士禍에 뒤이어 朋黨이 횡행했던 시기에 관료 생활을 했던 양희는 어떤 정파에도 휩쓸리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직분에 충실하였지만 결과는 한직으로의 빈번한 이직과 주변의 무관심 밖에 없었다. 그러나 양희는 구차하게 관직을 구걸하거나 현달하기 위해 어떠한 행위보다는 현실적 조건 하에 알맞은 자세를 취하고 있다. 한직으로 전전하며 자신을 알아주는 변변한 사람조차 없지만 소소한 詩作으로 자신의 정회를 풀고 술로 시름을 달래보기도 하고 외롭지만 푸름을 잃지 않는 송죽의 기상을 통해 자신의 맑고 가난한 청빈한 삶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평생을 세파에 시달려도 청빈한 자세는 현실적 조건에서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다.

25) 『論語』, 「顏淵」, “子曰, 非禮勿視, 非禮勿聽, 非禮勿言, 非禮勿動.”

26) 『龍城世稿』 乾, 「九拙庵十詠」 中 「右與人交拙」.

休官僮僕慢	관직을 그만두자 노복이 거만해지고
多病世情移	병이 많아 세상 인정이 옮겨가네
折簡時無報	편지를 보내면 답장이 없기도 하고
敲門或見麾	문을 두드리면 홀대받기도 하네
清貧人不信	청빈함을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지만
飢飽只心知	주림과 배부름은 마음만으로 아는 법
惟有城東月	저 성 동쪽에 뜬 달만이
殷勤入戶窺	은근히 들어와 나를 살피네 <sup>27)</sup>

관직을 그만두면서 쓴 시이지만 자조적인 분위기가 풍긴다. 자의든 타의든 잠시 관직을 두자 거느리던 노복까지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모습과 병까지 찾아오자 주변사람들조차 외면하는 모습은 요즘 세대와도 비슷하기도 하다. 관직을 그만두니 보낸 편지에 답장조차 오지 않고 찾아가 대문을 두드려도 사람 없다 홀대 받기 일쑤였다. 양희는 청빈한 관료 생활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오직 자신의 마음만으로 자부하면서 빈한한 객지 생활을 하면서 겪는 고통을 달에 빗대어 잊고자 하였다.

得官契濶愈疏	벼슬욕심 그만두니 더욱 소원해지나
臨老風騷益工	늙어가면서 시는 더욱 공교롭게 되네
白髮何妨覓句	흰 머리가 시구 찾는데 무슨 방해겠는가
青衫不必道窮	푸른 관복으로 곤궁하다 말할 것 없네 <sup>28)</sup>

양희는 40여년 관료 생활을 하면서 내직으로는 兩司吏兵曹知製教, 掌樂正, 承旨, 諫長, 判決事兼金吾와 외직으로는 忠淸·慶尙都事, 益山·金海·楊州·義州·安東·坡州牧使 등 많은 관직을 전전하며 임명과 파직을 많이 경험하였다. 병이 있어 체직하는 경우도 있지만 병이 없다는 이유로 파직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有病適一官, 無病罷一官]<sup>29)</sup> 그의 험난

27) 『龍城世稿』 乾, 「休官」.

28) 『龍城世稿』 乾, 「詠得官六言」.

29) 우응순, 앞의 논문, p.252.

한 관료 생활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벼슬 욕심에서 벗어나자 빈궁한 살림살이는 걱정되지만 詩作에 몰두하는 자신의 모습에서 自足을 추구하고 있다.

四十年從仕	사십 년 벼슬살이했지만
僑居席作門	허름한 집에 자리로 문을 만드네
家貧愁月閨	집이 가난해 윤달이 근심스럽지만
身病喜冬溫	몸은 병들어 겨울이 따뜻해 기쁘네
醜妾頻求去	못난 아내는 자주 먹거리 구하러 나가
田翁與議婚	촌로와 혼사 일을 상의하네
怡然安素分	편안히 내 분수를 만족하며
長嘯信乾坤	길게 휘파람 불며 자연에 맡기려 하네 <sup>30)</sup>

양희 나이 64세였던 1579년 기묘 겨울에 지방관에서 파직되어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지은 시이다. 40년 벼슬 생활동안 변변치 못한 녹으로 마련한 허름한 집은 문조차 제대로 달지 못할 지경이었다. 또 한 달치 녹 봉조차도 여유가 없어 윤달이 낀 해는 더욱 생활고에 시달리기에 아내는 구걸하기 위해 자주 거리를 나서고 있고 媒婆일도 하면서 집안 경제에 一助를 하며 어려운 생활을 지내고 있다. 이미 양희는 노구로 변변한 재산도 마련하지 못한 자신의 처지를 희학적으로 묘사했지만 素分에 만족하며 휘파람 불면서 자연에 자신을 맡기고자 하였다.

元日全家飢	새해 첫날 온 집안이 굶주리는데
故人送玉粒	절친한 벗이 귀한 쌀을 보내오네
山妻持轆轤	산가의 아내 물동이 들고
卽向井中汲	우물가에 곧장 물 길으러 가네 <sup>31)</sup>

새해에 쌀 10말을 보내 온 친구 左尹 崔元叔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30) 『龍城世稿』 乾, 「己卯冬罷郡還鄉僑居」.

31) 『龍城世稿』 乾, 「崔左尹元叔惠米十斗」.

지는 작품이다. 새해에도 먹을 끼니조차 없어 굶고 있던 때 옛 친구가 10말의 쌀을 보내오니 그 기쁨을 ‘惠米’, ‘玉粒’이라 칭송할 지경이었다. 양희의 작품 가운데에는 이와 같이 주변 지인들이 보내온 작품들이 자주 보인다. 金貴榮이 겨울 魚醬을 보내오자 절을 하고 부둥켜 올렸던 사례나<sup>32)</sup> 같은 해 급제를 한 박순이 白布를 보내오자 사례한 시에서 “사람들은 모두 녹봉으로 부유해졌지만, 나는 홀로 관직으로 가난하다네”<sup>33)</sup>라 언급한 사례 등이 있고, 다음에 소개할 작품도 같은 경우이다.

貧者士之常	가난은 선비에게 의례 있는 일이니
固窮我所欲	곤궁에 잘 대처함이 내가 원하는 바라
諒非餐霞人	진실로 나는 신선이 아니니
如何能絕穀	어찌 곡기를 끊을 수 있겠는가
顏公猶乞米	안연조차 쌀을 구걸했고
莊周亦貸粟	장주 또한 곡식을 빌렸다네
況余羈旅臣	하물며 외지를 떠도는 나는
千里携骨肉	천리나 멀리 가족을 끌고 다니네
洛下無一頃	한양에 한 지경 땅도 없고
明時又失祿	좋은 세상에 녹봉조차 없다네
小兒紛滿全	아이들 눈앞에서 뛰어노니
能不亂心曲	마음이 착잡하지 않겠는가 <sup>34)</sup>

(下略)

인용문은 判書 鄭仁吉이 백포를 보내오자 사례로 쓴 시이다. 양희는 청빈한 삶으로 빈궁한 생활이 이어지자 친구나 동료 등 지인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었다. 양희는 가난은 선비라면 항상 있는 일로 잘 대처하는 것이 자신의 임무임을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이 신선이 아닌 이상 계속된 가난은 참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안연과 장주를 빗

32) 『龍城世稿』 乾, 「謝金判書顯卿貴榮致魚醬(與公司馬同年)」.

33) 『龍城世稿』 乾, 「謝朴領相淳惠白布二十五韻(公與思庵同年)」.

34) 『龍城世稿』 乾, 「謝鄭判書仁吉惠白布」.

대어 가난의 고통을 하소연하고 있는 양희는 내외직을 떠돌며 가족을 끌고 부양해야 하는 자신의 곤궁한 생활을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심란해 하고 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토로하지만 첫 구에서도 주장했듯이 가난은 항상 선비에게 있는 일로 어떻게 잘 대처하는가에 의미를 두었다. 자신의 빈궁은 청빈한 관료 생활의 소산물이다. 그러므로 빈궁한 삶은 외적 상황에 의한 것 보다는 자신이 선택한 청빈한 관료 생활의 현실적 모습이었던 것이다. 양희는 자신의 평생 곤궁을 외부적 요인에 기인하지 않고 자신이 선택한 운명이며 쫓아내도 방법이 없어 세상 사람들이 天性이라 말한 것처럼<sup>35)</sup> 자신의 곤궁한 삶을 거부하지 않고 청빈한 관료로써 한 평생을 영위했던 것이다.

## 2. 백성들의 삶과 世態에 대한 感慨

10년 동안 내외직으로 전전한 양희는 누구보다도 백성들의 삶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충청, 경상도사와 부안·익산·김해·양주·의주·안동·과주 등의 전국을 전전하며 목민관으로 선정을 펼치면서 조부 양관의 청백리의 계보를 이었지만 그가 목도하는 백성들의 삶은 매우 열악하였다. 궁궐, 축성 공사 등 각종 토목공사는 백성들이 짊어지는 직접 노동으로 그들의 삶을 피폐하게 했고 더욱이 1550년대 후반부터 각종 자연재해가 장기적으로 빈번하게 발발하기도 하였다.<sup>36)</sup>

또 지방사회의 중소지주층들의 농지 겸병으로 농민들이 소작농으로 추락하기도 하면서 농촌 경제의 붕괴를 가속화 하고 있었다. 양희는 이런 현실 모습을 ‘怪’라 정의하고 그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스스로에

35) 『龍城世稿』 乾, 「九拙庵十詠」, “此老生平困, 都緣一拙偏, 力排應不去, 角逐又無便, 自識皆由命, 人言始得天, 猶嫌乞巧女, 抱甕願終年.”

36) 『명종실록』과 『선조실록』의 자연 재해 조에 보면, 원인 모를 대자연 재난이 지속적으로 일어났고 기상학적 이변이 속출하여 한발과 홍수가 교차하며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계 질문해 보았다.

古者民既庶	옛날 백성들은 번성하여
村落如雲布	촌락이 구름처럼 퍼져있었네
土田本有限	토지가 본래 제한이 있고
稼穡亦有數	농사도 분수가 정해져 있었네
雖然人自足	그러나 사람들은 자족해서
凶年不如苦	흉년엔 괴로움을 알지 못했네
今者民已散	지금은 백성들이 이미 흩어져
一境兩三戶	한 고을에 두서너 가구뿐이네
四野無閑田	사방 들판 노는 땅이 없어도
歲入亦如古	매년 수확은 옛날과 같다네
雖然民益貧	그러나 백성들은 더욱 가난해져
樂世猶望哺	풍년에도 구휼을 바라네
向來千夫耕	예전 천 명이 농사짓던 땅은
一夫耕有裕	한 명이 농사지어도 넉넉하고
向來千家食	예전 천 가구 먹던 땅은
一家食不飫	한 집이 먹어도 넉넉지 않네
借問見事人	정지하는 이에게 묻노니
此理知何故	이 이치가 무엇인지 아는가? <sup>37)</sup>

儒者인 양희가 언급한 옛날의 백성은 堯舜 시대의 백성을 말한다. 이  
 상사회로 칭송되는 요순시대는 곳곳에 백성들이 정착하며 자신들의 땅  
 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일정한 규모 이상을 소유할 수 없었고 자족할 수  
 있을 정도이며 흉년에도 고난을 모를 정도였다. 그러나 양희가 목도한  
 현재의 농촌은 지나친 부역과 수탈로 촌락에 몇몇 백성들만이 있고 이  
 들이 사방의 넓은 농지에 경작을 하지만 정작 그들의 삶은 말할 수 없  
 을 정도로 처참했던 것이다. 몇몇 지방 토호와 지주들의 무분별한 토지  
 겸병으로 소규모 자작농들이 이들의 소작농으로 전락하였음을 보여주는

37) 『龍城世稿』 乾, 「怪問」 七首 中 第一首.

것이다. 이들은 아무리 풍년이 들어도 흉년에만 구제하는 관청의 구휼만을 기댈 만큼 극심한 凶荒을 경험하고 있었으니 참으로 이상하고 괴이한 현상인 것이다. 양희는 이와 같이 된 이유를 당시 부패한 정치 현실에서 포착하고 깊이 탄식하고 있다. 이런 모습은 다음 시에서도 나타난다.

今之爲百里	지금 백리 다스리는 이는
未必皆良吏	모두 어진 관리는 아닐 것이네
雖然官道傍	그러나 관가 근처에는
處處相對峙	곳곳마다 비석이 마주 서 있네
壟上泣農夫	밭두둑에는 농부가 흐느끼고
城頭啼老鳥	성 위에 늙은 까마귀 울어대네
治效有古今	다스림은 예나 지금 다르고
紀功或有無	공적은 있기도 없기도 하네
無碑民安何	비석 없는데 백성들 평안함은 무엇 때문인가
有碑民怨何	비석 있는데 백성들 원망함은 무엇 때문인가
借問見事人	정치하는 이에게 묻노니
其故抑何耶	그 이유가 무엇인가 <sup>38)</sup>

인용문은 「怪問」의 제 3수 중 일부분이다. 양희는 각 고을의 관아 앞에 길게 나열되어 있는 善政碑의 모습을 보고 회의를 느끼고 있었다. 선정을 베푼 관원들을 표창하고 기리기 위해 세운 비석이 과연 이렇게 많은 수가 존재한다면 백성들의 삶도 혜택을 누릴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밭에서 우는 농부의 모습으로 대비되는 상황은 힘들게 사는 백성들을 헤아리려는 바른 지방관의 모습과는 괴리감이 있다. 지방관의 善政·惡政을 떠나 선정비의 건립으로 백성들에게 또 다른 부역을 부과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양희는 선정비가 없어도 훌륭한 선정을 펼칠 수 있어 자신은 올바른 도리로 관리의 본분을 실현하기를 갈망했던 것이다. 이와

38) 『龍城世稿』 乾, 「怪問」 七首 中 第三首.

같은 작품들을 보면 단지 백성들의 삶을 목도에만 그치지 않았고 수사적 표현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一生惟率意 평생 동안 멋대로 살다오다  
萬事日荒嬉 모든 일이 날로 험클어지네  
奉獻常居後 물품 헌상할 때 항상 뒤처지고  
催科不用笞 세금 독촉할 때 매질하지 않네<sup>39)</sup>  
(下略)

양희는 자신의 정사에 대해 스스로 자술하기를, 담장이 기울어 구멍난 곳을 대충 메우고 낡아 쓰러질 것 같은 집에 거처하고 있었지만 지방 목민관의 자세를 잃지 않고 관료의 직분에 대한 신념을 유지하고 있었다.<sup>40)</sup> 그는 비록 헌상하는 물품이 항상 뒤쳐져 있었지만 백성들을 가혹하게 내몰며 세금을 독촉하는 일이 없이 愛民의 정신을 견고히 유지하였다. 그리고 수령의 본분을 權力의 기반으로 삼지 않았고 백성들의 어려운 현실을 이해하고 보호하며 진정한 목민관의 자세를 강렬히 드러내고 있다.

조부인 양관은 지방 목민관으로 여러 지역을 전전했지만 백성들에게 과도한 부역과 수탈을 일삼던 지방 방백들을 거부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며 청렴한 관료 정신을 견지하면서 治民에 더욱 매진했다면 양희도 양관의 청백리 자세를 계승하였던 것이다.

## V. 結論

본고는 九拙庵 梁喜의 생애와 『龍城世稿』에 수록된 官僚詩에 대한 연구였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한 그의 위상을 재고

39) 『龍城世稿』 乾, 「九拙庵十詠」 中 「右政拙」.

40) 『龍城世稿』 乾, 「九拙庵十詠」, “牆傾仍補缺, 屋老任扶危, 尸坐經時月, 因循只自欺.”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며 새로운 자료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

양희는 唐谷 鄭希輔의 高足으로 玉溪 盧禎, 靑蓮 李後白과 함께 지리산 함양지역의 天嶺三傑이라 칭송받기도 하였다. 그리고 德溪 吳健, 陽谷 蘇世讓 등과 함께 청렴한 관리로도 세상에 이름을 드러낸 인물이며 介庵 姜翼, 梅村 鄭復顯, 梅庵 曹湜, 桃灘 邊士貞 등의 名賢들과 당대를 풍미하였다.

그의 생애는 청빈한 관료의 삶이라 말할 수 있을 정도였고 청백리였던 조부 逸老堂 梁灌의 영향을 받아 40여 년 관료 생활에 청렴한 관료 정신을 계승 받았다. 자신의 號인 九拙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품, 용모, 언어, 문장, 벼슬, 교유, 정치, 爲身, 자손들에 대한 계획 등 아홉 가지를 읊으며 스스로 權奸으로 어지러운 세상에 대응할 수 있는 덕목으로 여겼다. 양희는 66세의 노구로 명나라 사행 길에서 졸할 때까지 ‘肅將使命’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

그의 유고는 일찍이 산실되어 전해지지 않고 현재 『용성세고』에 그 편린이 전할 뿐이다. 『용성세고』는 그의 사후 200년 뒤에 乾·坤 두 책으로 완성 되었는데, 양지천, 양관, 양응곤, 양희, 양홍주, 양홍부, 양황 등 6代 7名의 詩文, 遺事, 行狀, 墓碑, 遺稿 등을 수록한 책이다.

양희의 시가 당시에 여러 사람들에게 회자될 정도로 문학적 명성은 이미 세상에 떨칠 정도였고 다양한 詩體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시에 대한 공력은 남달랐다. 그러나 『용성세고』에 잔존하는 그의 시세계는 淸貧한 삶과 苦難한 官僚 생활을 드러내고 있으며 백성들의 삶과 世態에 대한 感慨를 거침없이 표현하고 있었다. 특히 「九拙庵十詠」은 그의 삶과 문학의 근본 사상을 이루는 작품으로 평가 받을 수 있다.

40여 년 동안의 관료 생활에서 얻은 시들은 혼탁한 세상에 합류하지 않고 외로운 淸流의 삶을 묵묵히 지키고 있음을 표현하였고 평생을 세파에 시달려도 청빈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양희는 청빈한 관료 생활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오직 자신의 마음으로만 자부하면서 가난의 고통을 극복하였다. 비록 친구나 동료 등 지인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의 시에서는 가난은 선비라면 항상 있는 일이라 치부하며 극복하는 것도 선비의 임무임을 주장하고 있었다.

그의 시에는 백성들의 삶이 왜곡 없이 진솔하게 표현되어 있었고 당시 부패한 정치 현실을 「怪問」을 통해 깊이 탄식하였다. 나아가 지방관의 올바른 도리와 관리의 본분을 실현하기를 갈망하였다. 그리고 수령의 본분을 權力の 기반으로 삼지 않았고 백성들의 어려운 현실을 이해하고 보호하며 진정한 목민관의 자세를 강렬히 드러내고 있다.

#### <參考 文獻>

- 『成宗實錄』 『明宗實錄』 『宣祖實錄』 『大東奇聞』 『論語』  
『龍城世稿』,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龍灣奔問錄』, 利仁藏本.  
盧 禎, 『玉溪集』, 『韓國文集叢刊』 續37, 한국고전번역원.  
宋時烈, 『宋子大全』, 『韓國文集叢刊』 115, 한국고전번역원.  
尹光紹, 『素谷先生遺稿』, 『韓國文集叢刊』 223, 한국고전번역원.  
李德懋, 『靑莊館全書』, 『韓國文集叢刊』 259, 한국고전번역원.  
李德壽, 『西堂私載』, 『韓國文集叢刊』 186, 한국고전번역원.  
李 珥, 『栗谷全書』, 『韓國文集叢刊』 44, 한국고전번역원.  
『南原梁氏大同譜』, 南原楊氏大宗會, 回想社, 1998.  
『南原梁氏家乘譜』, 南原梁氏家乘譜發行委員, 1985.
- 함양문화원, 『함양역사인물록1』, 향토문화연구소, 2004.  
———, 『歷代咸陽人物論文集 I』, 대보사, 2009.  
구산우외 3인, 『경남의 서원』, 창원대학교 경남학연구센터, 2008.  
노재현·이정환, 「시문과 바위글씨로 본 함양 大孤臺의 경관 향유자와 場所 霸權」,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2권, 한국전통조경학회, 2014.  
우응순, 「九拙庵 梁喜의 士林意識과 詩世界」, 『慶南文化研究』 30집,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소, 2009.

### Abstract

*A Study on Gujoram(九拙庵) Yang-hee(梁喜) / Jung Kyung Hum\**

Gujoram(九拙庵) Yang-hee(梁喜) is still not known in academic circles. Yanghui is very famous in Gyeongsang Province officials and intellectuals. But until now, research is very little about him. Therefore this study is the discovery and analysis of new data, because very worth it.

His anthology is not being passed. Just his work is contained in 『Yongseongsego(龍城世稿)』. This book is his book collecting the literature of the family house. His anthology is not now. Therefore, this book you can understand his precious data.

If you look at his life, 40 years living on the poor but honest officials. His poor but honest bureaucratic life is largely because of his grandfather.

He is a good bureaucracy and literature is a very talented writer. His poems are at the time was enough to memorize a lot of people. His poetry was obtained out of his life works. In particular, his pen name Gujoram(九拙庵) is a very important literary material. His poetry express the pain and reality of the peoples. And in his literature was good job of expressing management's life of integrity.

**【Key words】** Gujoram, Yang-hee, Yongseongsego, Poor but honest official, the difficult life

투고일 : 11월 3일, 심사일 : 11월 22일, 게재확정일 : 12월 4일

\* Lecturer of Chungnam National Univ. / juilam@hanmail.net